

## 질책과 믿음!

# 한국도서관협회 발전의 원동력



글 | 남 영 준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namyj@cau.ac.kr

부산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필자로서는 김해공항에서 부산대학교까지 가는 길이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다. 일찍 출발했지만 주룩주룩 비까지 내려 더욱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세미나 발표시간에 간신히 맞추어 발표장소에 도착하였다. 겨우 숨을 돌리고 ‘도서관계 전문직 단체의 역할과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교수의 신분이 아니라 한국도서관협회 이사의 신분이었다. 발표의 요점은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축적하자는 것과 한국도서관협회가 관종별 회원도서관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였다. 또한 주제와는 별도로 한국도서관협회와 사무국이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비상근 이사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이 같은 발표 후에 토론자로서 천순희 선생님과 박현영 선생님, 이양숙 선생님의 승으로 의미 있는 의견을 주셨다. 듣기에 따라서 협회에 대한 칭찬도 많았지만, 오히려 원망의 내용도, 섭섭함의 내용도, 기대의 내용도 많았다.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의견들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다.

첫째, 지금까지 협회에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실제로 협회가 현장의 사서들을 위해 수행한 업적과 성과를 회원들은 잘 모르겠다. 즉 회원의 발전을 위한 협회의 투자와 노력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 보인다.

둘째, 현장 사서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지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이때에 협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즉 도서관 현안문제와 사서의 지위향상을 위한 의지와 조직적 행동에 대해 협회가 노력을 기울리 하고 있다. 특히 사서 권익신장을 위해 어떠한 청원, 입법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원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회원들은 더 이상 협회에 기대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은 회원들의 무관심을 초래하여 협회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

셋째, 협회에서는 전국도서관대회와 방대한 공모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발전과 사서의 권익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한다.

넷째,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공공도서관 분야이고, 이에 비해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질적 관심이나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이런 문제로 많은 사서들이 협회회원 가입도 머뭇거리고 있다.

협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필자한테는 회원들의 섭섭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그 관심들이 다행이란 마음도 들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다는 토론자 한 분의 말씀이 백번 맞기 때문이다.

개인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를 받는 것에 대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비사용에 대

해서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알뜰하게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있다. 예를 들면, 외부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문학도서를 선정하고 보급하는 일, 전국 공공도서관에 작가를 파견하는 일,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사업들은 소위 콩고물이 협회에 떨어지기는커녕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와 보고에 대한 부가적인 일만 가중되는 사업이다. 보기에 따라서 “재주는 협회가 넘고 실익은 공공도서관에서 얻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구하나도 그에 대해서 불평하기 보다는 “아 너 고생으로 협회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보답을 하는구나”라는 뿌듯함에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있다. 전국도서관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외부에 알리고 현장과 사서, 학

계의 지난 일 년과 앞으로 일 년의 성과와 목표를 발표하는 좌판을 준비하면서도 싫은 내색은커녕 즐겁게 10월의 일산 킨텍스에서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의 권익을 위해 협회가 가시적으로 사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서수당인상이나 전문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던 대정부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고 그 가시적인 결과도 부족하였다. 또한 협회가 앞장서서 사서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행동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사서직 수당인상투쟁을 협회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맞는지 혹은 협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병행 개설하는 것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타당한지를 논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실제 미미하나마 그러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달에 새로이 당선된 국회의원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에게 협회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다. 내

용은 당연히 도서관 위상과 사서권익을 위한 것이었다.

협회는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회원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의견은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 논의된 결과가 우리 도서관계와 사서의 발전을 위한 지향점으로 쓰이도록 하는 책무를 협회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렇수록 회원들의 요구를 더 듣고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이 참여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수용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 지적과 질책은 협회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칭찬과 믿음은 협회와 도서관 발전을

\* \* \* \* \*

## 한국도서관협회는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회원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의견은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그 논의된 결과가 우리 도서관계와 사서의 발전을 위한 지향점으로 쓰이도록 하는 책무를 협회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위해 꼭 필요한 긍정적인 힘이란 것도 분명하다. 그 중심점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사서지위향상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협회와 사무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협회와 사무국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적을 겸허히 수

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매우 노력 중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중요시하는 덕목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의이다. 이 글은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던 토론 내용과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협회에 전달하겠다는 것과 《도서관문화》에 투고하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에서 쓴 것이다. 또한 협회 입장을 변호하는 변명의 일부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실력은 없어도 어느 정도 훈수를 둘 수 있는 것처럼 협회와 현장에 대해 적게나마 훈수를 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혹시 토론내용에 대해 조금 다르게 전달되었더라도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회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